

01 깨달음

학습 목표

•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승 불교의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브라만(Brahman)교

고대 인도에서 『베다』를 근본 경전으로 하여 발달한 종교

■ 육사외도(六師外道)

석가모니 생존 당시 인도의 여섯 사상가로 속명론, 유물론, 회의론, 도덕 부정론, 생명 불멸론, 극단적 염속주의 등의 입장을 취하였다.



●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ārtha, B.C. 563?~B.C. 483?)

석가모니 출가 이전의 이름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불타(佛陀), 붓다(Buddha)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불교의 연원과 근본 사상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는 전통의 브라만교가 그 권위를 상실해 가는 가운데, 육사외도와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싯다르타는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며 불교를 창시하였다.

싯다르타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한 이후 6년여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佛陀, Buddha), 즉 석가모니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펼치기 위해 다섯 수행자에게 설법을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불교는 교조인 부처^불, 그가 깨닫고 설법한 진리^법, 출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수행 공동체^승를 갖춘 하나의 종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우주와 만물,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연기설(緣起說), 사성제(四聖諦), 삼법인(三法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기설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연기란 우주와 인생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인과 조건^연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 『잡아함경』 -

만화 "연기설"



연기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본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인생과 우주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연기설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멸하는 길을 밝힌 것으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고성제(苦聖諦)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현실 판단이다.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고통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집성제(集聖諦)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과 이로 인한 애욕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그 결과 고통을 겪는다고 본다.

멸성제(滅聖諦)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에 관한 진리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인 열반의 경지, 즉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상태에 관한 진리이다.

도성제(道聖諦)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밝힌 진리이다.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석가모니의 또 다른 가르침인 삼법인은 ‘세 가지의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이며, 열반적정 대신 일체개고(一切皆苦)를 꼽기도 한다.

제행무상은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된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 무명(無明)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무상(無常)이며 무아(無我)임을 모르는 상태

■ 애욕(愛欲)

사물을 탐하고 애착하며 욕구하는 마음

■ 열반(涅槃)

‘불어서 꺼진 상태’라는 니르바나(nirvana)라는 말에서 왔으며,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 중도(中道)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지도 지나치게 게을리나 고행에 빠지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팔정도(八正道)

사성제 중 도성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견(正見, 바른 견해), 정사(正思, 바른 생각), 정어(正語, 바른 언어), 정업(正業, 바른 행위), 정명(正命, 바른 직업), 정정진(正精進, 바른 노력), 정념(正念, 바른 마음 챙김), 정정(正定, 바른 선정)의 여덟 가지를 의미한다.

탐구와 성찰

불교의 세계관

>> 동양 윤리 사상 이해하기

- 다음은 불교에서 공양(供養) 전에 암송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 글에 드러난 불교의 세계관을 써 보자.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한 톨의 쌀에도 만인의 노고가 스며 있으며 한 올의 실타래 속에도 베 짜는 이의 피땀이 서려 있다. 이 물을 마시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옷을 입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일체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 법륜, 『생명의 강은 흐른다』 -



해탈(解脫)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迷惑)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지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

계율을 지키는 계학(戒學), 선정 수행을 실천하여 집중하는 정학(定學), 부처의 깨달음과 같은 지혜를 얻는 혜학(慧學)을 의미한다. 팔정도를 삼학(三學)으로 구분할 때 정견, 정사는 혜(慧)에 해당하고, 정어, 정업, 정명은 계(戒)에 해당하고, 정념, 정정, 정정진은 정(定)에 해당한다.

아라한(阿羅漢)

본래 부처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후에 불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階位)를 이르는 말로 바뀌어 쓰였다.

대승 불교의 '대승(大乘)'

'대승'은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자신들을 대승 불교라고 칭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한 부파 불교를 소승(小乘) 불교라고 불렀다.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다.

육바라밀(六波羅蜜)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으로 널리 베푸는 의미의 보시(布施), 계율 준수를 의미하는 지계(持戒), 관용을 의미하는 인욕(忍辱), 노력을 의미하는 정진(精進), 흔들림 없는 평상심을 의미하는 선정(禪定), 지혜를 의미하는 반야(般若)를 말한다.

연계 학습

⇒ 67쪽 『반야심경』

제법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른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일 뿐이며, 자아^아[我] 역시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열반적정은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일체개고는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탐과 현실 세계가 영원히 존속한다고 집착함으로써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에 빠져 고통받게 된다. 5

이와 같이 석가모니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정·혜, 삼학을 제시하였으며,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겨 모든 사람에게 자비(慈悲)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10

불교의 전개 -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그의 가르침은 한동안 제자들에 의해 구두로 전승되었다. 이후 경전 편찬을 통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교파의 분열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불교가 부파 불교(部派佛敎)이다. 15

부파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였으며 따라서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파 불교의 특징은 부파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아라한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아라한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0

그러나 부파 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교리를 강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나타났다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대승 불교(大乘佛敎)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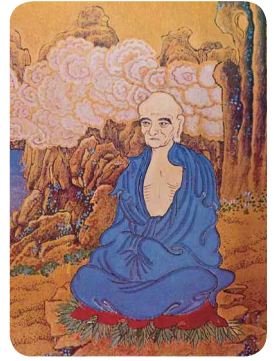
대승 불교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菩薩)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방안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25

대승 불교의 교리는 공(空) 사상을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공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철저히 논한 중관(中觀) 사상과 이를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보완한 유식(唯識) 사상을 통해 이론과 수행의 양 측면에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30

중관 사상은 공 사상을 확립한 용수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용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 존재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 즉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실체라 믿는 것들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는 것이다.

용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은 고정불변하는 유(有)나 아무것도 없는 무(無)와 같이 극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도(中道)를 강조하였다. 중관 사상에서는 이러한 용수의 사상에 따라 중도를 잘 관찰하는 일 즉 중관(中觀)을 중시하였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에 따라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식 사상은 공 사상이 지나치게 공허한 사상으로 치우쳐 간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유식 사상도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실체를 부정하는 중관 사상과 달리, 유식 사상은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식 사상은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唯識)을 강조하고,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주장하였다. 유식 사상은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이는 교종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 용수(龍樹, 150?~250?)
인도의 불교 학자로서 본래 이름은 나가르주나(Nāgārjuna)이다.



고전 자료 읽기 중도(中道)

출가자가 가까이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두 가지 극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 『상응부경』 -

분석/해석 석가모니는 6년의 수행 끝에 쾌락과 고통이라는 양극단을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얻는 중도(中道)를 따를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도 사상은 진리를 깨친 부처가 자신과 함께 고행한 다섯 제자에게 설파한 내용이다.

△로 확인

- ① 석가모니는 인간이 우주와 만물,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다. (O, X)
- ② 불교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 삼독(三毒)을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한다. (O, X)
- ③ 유식 사상은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고 본다. (O, X)